

오늘 본문은 룻기의 서론, 첫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옴이라는 연속된 큰 고난을 만난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룻기 1장 1절에 보면 룻기의 시대적, 장소적 배경을 알게 됩니다. 룻기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암울한 시기입니다. 사사시대를 성경은 '그 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사사기 21장 25절)는 문장으로 설명합니다. 어떤 성경 학자는 사사기 마지막 5장은 가장 더럽고 추악한 인간의 죄악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을 자기 종처럼 부리는 신앙인, 돈을 쫓아 사는 제사장, 그리고 집단 강간, 살인, 전쟁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소적 배경은 모압 지방입니다. 유대인들이었던 나옴과 그의 남편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이주한 이유는 그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1절의 흉년은 '라아브'라는 하브리어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가장 심각한 의미로 사용합니다. 고대 근동에도 기근은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모압으로 이민을 결정한 것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옴이 낳은 아들의 이름에서 가나안과 모압에서의 삶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말론과 기론이라고 아들들의 이름을 정합니다. 말론은 '병들다, 슬퍼하다', 기론은 '수척하다, 실패하다'라는 뜻입니다.

3절에 보면 모압에 온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옴에게 가장 충격적인 고통이 찾아옵니다. 결혼한 두 아들이 자신보다 먼저 죽은 것입니다. 룻기의 이야기는 이런 배경 속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이러니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옴의 이름은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어떤 기쁨이 없습니다. 엘리멜렉의 이름 뜻은 '하나님은 왕이시다'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하나님을 왕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옳은 대로 살아가던 시대입니다.

더욱이 1절에 흉년이 든 지역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이 땅을 성경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엘리멜렉과 나옴이 살았던 지역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집을 의미하는 '베이트'와 빵, 떡을 의미하는 '레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이름 뜻이 무엇이예요? 빵집,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떡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뿐 아니라 성경 어디에서도 엘리멜렉이나 말론, 기론이 죄를 지었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떠난 것이 무조건 죄라고 표현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진짜 문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먹을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떡집인 베들레헴에 떡이 없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과 나옴은 그 땅을 떠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걸음 더 나아가 떡집에 있어야 했던 떡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토미 테니 목사님은 '다윗의 장막'이라는 책에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떡에 대해 이런 중요한 설명을 합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떡이 등장하는 본문이 있는데, 구약에서는 진설병이고, 신약에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두 본문에서 떡은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민 4:7, 요 6:35 참조)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불리며 떡집이라 불리는 땅에 떡이 없는 것이 진짜 문제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것이 진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이 이름만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고 하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이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 보아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진정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함시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생명의 빵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하나님을 구함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함시다. 그분의 임재, 직접 오시는 그날을 우리 함께 소망하며 기대하고 목말라함시다. 다시 그분을 구하며 그 앞에 나아갑시다.

암송

이번 주 외울 말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시편 42편 1절)

통독

이번 주 성경 통독

6/17(월)	6/18(화)	6/19(수)	6/20(목)	6/21(금)	6/22(토)	6/23(주일)
욥 16-20	욥 21-27	욥 28-31	욥 32-35	욥 36-40	욥 41-42 시 1-5	시 6-12

Q T

이번 주 QT 말씀

6/17(월)	6/18(화)	6/19(수)	6/20(목)	6/21(금)	6/22(토)	6/23(주일)
욥 1:1-14	욥 1:15-21	왕하 1:1-8	왕하 1:9-18	왕하 2:1-14	왕하 2:15-25	왕하 3:1-12

나눔

목장 나눔 문제

1.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닫게 되거나 은혜 받은 것을 나누어 주세요.
2. 우리 교회와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하고 있는지 나누어 주세요.
3. 목원들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세요.